

2013. 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2013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3.26.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송인덕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종국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 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13	-	1	19	-	1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14	-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 건	6건	2월
교양	'TV특강' 우수 강사 섭외 방영되길	'TV특강' 우수 강사 섭외	2월
교양	'공간 다큐멘터리 그곳' 소재의 다양화 필요	'공간 다큐멘터리 그곳' 소재 다양화 발굴하여 제작	2월
보도	LTE 현장 뉴스 적합성 확인하여 출동 필요	LTE 현장 뉴스성격에 맞춰 출동	2월
교양	'허참 토크엔 조이' 출연자와 눈높이 맞게 질문 유도	'허참 토크엔 조이' 출연자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진행	2월
보도	LTE 뉴스현장 특정지역 벗어나길	LTE 뉴스현장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2월
교양	'시사플러스' 일부 영상편집 매끄럽지 않아	"시사플러스" 영상편집 깔끔하게 편집	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19일 테마여행 '길' 「근대와 맞닿은 곳 군산」 편이 방송되었다. 본 방송은 수탈의 역사적 현상이었던 군산 내항의 옛 명칭과 시설물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근대문화제가 많은 지역인 군산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생소한 지명이나 시설의 명칭들에 대해서도 여행자의 대화 뒤에 자세한 전문가의 설명이 뒷받침 되어서 지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특히, 역사화 시설물의 관계나 의미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있어 일제가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역사적 배경 설명과 함께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군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연계사업에 대해 그래픽을 통해 설명을 하였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이번 테마기행 길은 전주MBC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MBC지역사 제작회의때 전달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작해 가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20일 TV특강 「위기,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 편이 방송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일 크고 작은 위기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터라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하고 시청하게 되었다. 본 방송은 현대의 삶은 많은 위기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최근 이슈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세대별로 정리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10대의 왕따, 20대의 취업, 30대의 경제, 40-50대의 이혼, 60대 실버세대의 위기로 각 세대별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절하게 제안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 될 수 있음을 말하며, 3가지 관점에서 큰 해결책을 제안하여 이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p>	<p>TV특강 주제를 잘 선정하고, 출연강사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밀도있게 강연할 줄 아는 강사를 섭외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정진하겠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생각을 하게하는 유익한 방송이었다(오덕성).</p> <p>23일 허참의 토크&조이 「괴짜나눔 디자이너,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 편이 방송되었다. 허참의 토크&조이가 타 방송사의 토크쇼와 다른 점은 대전·충청지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공헌하고 있는 지역의 유명인사를 초대하여 토크를 진행한다는 점일 것이다. 같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듯싶다. 이번 주에는 디자이너인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가 출연하였는데 토크와 함께 주인공의 일상모습을 사진이나 영상, 지인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틈틈이 보여주어서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을 담은 간결한 자막은 보는 이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요즘 대부분의 토크쇼는 진행자와 함께 여러 명의 패널이 토크를 진행해가는 방식으로 자칫하면 출연자의 이야기보다 패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토크&조이는 진행자의 간결한 진행을 통하여 출연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오덕성).</p>	<p>좋은 평가에 감사하다. 항상 지역민에게 감동을 줄 인물들을 선정하느라 제작진이 고생을 한다.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p>	<p>편성 수용</p>
교양	<p>23일 전국이 보인다 「호랑이 같은 기운이 장어&오리 등」 편이 방송되었다.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통해 전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국이 보인다'는 이번 주에도 장어와 오리 요리로 유명한 맛집들의 소개를 통해 봄을 맞이하여 입맛을 잃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카페와 컬트, 가구 및 의류의 전시와 판매를 함께하는 다양한 컨셉의 카페 소개를 통하여 천편일률적인 카페들에서 벗어난 새로운 카페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지역민과의 인터뷰와 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몇몇 리포터의 과장된 제스처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오덕성).</p>	<p>'전국이 보인다'는 18개 지역사의 다양한 생활정보, 미담, 볼거리 먹거리들로 꾸며진다. 지역사 각각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전국곳곳의 풍부한 소식이 강점인 반면 제각각의 개성이 두드러져 지적하신 대로 과장된 표현이 간혹 표출되기도 한다. 주의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허참의 토크앤 조이 프로그램 출연진이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KAIST 배상민 교수 연한 23일 편은 재미와 유익함을 가질 수</p>	<p>토크 프로그램에서 대개 물컵은 없는 경우가 많다. NG가 나거나 테이프를 교체할 때 스텝진이 물을</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있었다. 아쉬운 점은 출연자에 대한 배려로 소품이나 세트가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다. 1시간 진행되면서 물컵이 없었다. 출연진의 의자도 불편해 보였다. 출연진 소품을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다(김명수)</p>	<p>제공한다.</p>	
교양	<p>‘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MC가 바뀌었다. 진행이 이전 MC보다 나아 보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전과 달리 2개의 아이템을 다루고 있었다. 돼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축산농가와 층간소음을 다루었는데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하는 프롤로그 성격의 내용요약 화면에는 돼지값 폭락 1개의 아이템만 소개하고 CM 끝나고 본 방송에는 갑자기 ‘층간소음’으로 시작을 하였다. 방송 흐름이 맞지 않고 내용요약 소개시 당연히 2개 아이템을 제대로 소개했어야 하지 않는가?(김명수)</p>	<p>개편하면서 ‘시사플러스’는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모니터하여 MC, 세트, 아이템 선정, 나레이션, 자막체, 음악 등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시작했다.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생방송 토론마당’이 ‘대전MBC 시사광장’으로, 방송일자도 평일에서 일요일 아침으로 변화를 주었다. 편성시간대는 주중 저녁6시 시간대보다는 좋아 보인다. 타이틀이 시사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국에서 제작하는 ‘시사플러스’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도모할지 궁금하다. 평소에도 시사플러스와 내용주제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타이틀은 ‘토론광장’이 더 좋지 않은가? 출연진 패널 명패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좋겠다(김명수).</p>	<p>시사플러스와 차별화를 위한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루겠다. ENG구성 프로그램과는 달리 실제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연진 패널을 명패로 만드는 것은 방송이 아닌 일반 토론회 스타일이고 수시 자막 처리로 패널을 소개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보도	<p>24일 ‘시사광장’에서 「부석사관음상 국내환수 가능한가」편이 방송되었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부석사관음상의 역사적 가치, 어떻게 일본에 반입이 되었는지, 약탈인지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미리 취재화면을 제작해 소개를 했어야 한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시사광장 제작시 주제와 관련하여 기자의 취재화면을 프로그램에 꼭 넣어주길 바란다. 프로그램에 수화설명을 해주고 있어 시청자배려 차원에서 좋아 보인다(유덕순).</p>	<p>부석사 관음상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주제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별도의 제작물을 추가하는 방식을 진행 중에 있다.</p>	<p>보도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22일 방송분)를 모니터 해보니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최영근 화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관련하여 학예사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인물 배경이 어둡게 처리되었다. 생방송도 아니고 사전제작물 일텐데 인터뷰를 어둡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가? 제작시 배경구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한찬희).</p>	<p>지적에 공감한다. 외부VJ가 제작했는데 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제작진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였다.</p>	<p>편성 수용</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구성을 보면 프로그램 말미에 시청자들에게 주제를 던져 시청자의견을 받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22일자를 모니터 해보았더니 시청자의견이 22건이 접수가 되었고 1인당 소개하는 분량이 10초에서 15초쯤 이었다. 전체 분량은 4분 정도였다. 진행구성 부분에서 이 코너는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 진행자가 시청자의견을 그대로 낭송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자료 화면이나 기타 영상처리 되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4분이나 되는 시간을 진행자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니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다. 구성을 다르게 해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한찬희).</p>	<p>요즘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시청자와의 소통은 거역할 수 없는 시류인 것 같다. 시청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바로 자막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게 느낀다. 생방송이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막화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TV특강’이 12개사 공동제작으로 소개되고 있다. 55분 편성량을 시청자들이 인내심 갖고 시청하기에는 다소 길다. 시청률이 어떤지 궁금하다. 30분 정도로 줄여 편성해 보면 어떨까? 현재 54회 방영되었는데 각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방송사에서 제작을 했는지 초대강사가 누구인지 강사직업이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리스트 작업이 필요하다. 강의 주제를 보면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보편적 주제를 취급한다. 해당사 순서가 될 때 이를테면 대전MBC 순서가 될 때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백제’ 관련 주제를 갖고 특강을 하면 소구력이 더 있지 않을까?(김경숙).</p>	<p>편집을 줄이는 것은 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편성 시간 또한 쉽지 않다. 홈페이지에 강사들의 직업과 제작사, 내용 등은 건의해 주신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다음 대전MBC 녹화 시에는 백제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2개 주제로 돼지값 폭락과 증간소음 문제를 다루었다. ‘돼지 값 폭락’은 짜임새 있게 제작이 된 반면 ‘증간 소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성이 허술하였다. 증간</p>	<p>증간소음 문제는 항상 제작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소음 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경우는 중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있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환경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해 민원을 전화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소음 문제는 시청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앞으로 이를 더욱 심화된 주제로 발전시켜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한다(김경숙).		
교양	6일 '시사플러스'에서는 「무상보육 정책과 현실사이」를 방송하였다. 무상보육 문제는 전국적 사안이다. 대전,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인터뷰 대상층이나 사례지역을 보면 모두 대전지역이고 출연인물 또한 모두 대전지역 인물이다. 무상보육 문제만 보더라도 대전지역 보다는 충남지역의 사례가 더 열악하다. 세종 충남 지역의 사례도 다루어야 해야 한다. 잘 된 지역 이를테면 서울시 등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관련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다양한 취재가 이루어져서 방송되었어야 한다(김경숙).	지적에 공감한다. 다양한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작진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개편 된지 얼마 안되어 새로운 진행자들이 아직 정착은 되지 않은 것 같다. 리포터가 추운 날씨에 반소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김영광).	주의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뉴스를 통해 발 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시 범죄수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모방범죄의 위험이 뒤따른다. 뉴스 보도시 주의를 요한다(김영광).	범행수법의 특이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방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 기사화하겠다.	보도 수용
보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숙련된 직원이 어느 날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 대기업에서 경력직으로 이 직원을 채용한 것이다.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회사에 쓸만한 인력으로 육성해 놓았는데 코도 안풀고 대기업에서 빼앗는 것이다. 뉴스에 소개가 되었으면 한다(박희원).	대기업들의 이중적인 행태, (ex 중소기업 인력빼가기나 기술유출 등)을 집중 취재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4일 '시사광장' 「부석사관음상 국내환수 가능한가」 편은 언론의 객관적 방송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부석사관음상은 원천적으로 국내 것이라 국내환수 해야만 한다라는 국민적 감정도 있지만 핵심은 일본과의 외교	패널 선정시 고려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문제이다.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법원 등 유관기관의 입장도 의견을 담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화재가 약탈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어야 이 토론의 객관성이 살아난다. 패널들의 의견(국내 의견)만 전달되어 아쉬움이 남는다(장동환).</p>		
교양	<p>1일 '시사플러스'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누구를 위한 물산업 육성인가?」 편이 방송되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는 초기투자비용 부족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세금정책 문제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지방세가 많지 않다. 시사플러스에서 보다 발전된 방향에서 우리나라 세금정책의 문제도 한 번 짚어봤으면 한다(장동환).</p>	<p>세금정책은 시사플러스가 다뤄볼 만한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작진이 부족한 관계로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기타	<p>드라마 '마의' 방송 도중에 광고가 송출되는 방송사고가 있었다. 사과방송도 약했고 다시는 이런 방송사고가 나면 안되겠다(김형주).</p>	<p>앞으로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하겠다.</p>	<p>경영기술 의견참고</p>